

# 전북혁신도시 대형 공동사업 발굴 '시동'

### 전주시-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소통·협력·정보교류 강화 지방재정 확충 상호협력 노력 스타디투어·정기 간담회 실시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형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전주시는 올해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가 경제·사회적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활발한 소통 및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전주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발굴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순회 방문 스타디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우수사업

과 정책을 배우고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신규·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공공기관의 기획실장급 간부와 정기 간담회를 꾸준히 열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사항 등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전북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의 기획실장급 간부와 정기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논의했다.

김양원 전주 부시장은 "혁신도시 내 공



전북혁신도시 전경.

공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연계 협력을 위한 가교와도 같다"면서 "정부 통합 공유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연계 협조,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상호협력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 체계를 견고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주)씨엔에스와 구트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의 미취업자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 확정형 교육(클라우드 기반 전문가 양성 과정)에 나선다. 클라우드 기반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모습. <군산시 제공>

## '고용위기' 군산을 살린다

### 미취업자 클라우드시스템 기반 전문가 양성

정보기술(IT) 전문 교육기관인 (주)씨엔에스와 구트가 한국레드햇과 협약을 맺고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지역의 미취업자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 확정형 교육(클라우드 기반 전문가 양성 과정)에 나선다.

14일 씨엔에스는 "국가 기간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과정으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구트 아카데미 교육장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변화에 따른 실무 강의 프로그램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100% 국비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인증 과정으로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미취업자 또는 IT분야 이직 예정자,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개강한다.

고창인 씨엔에스 대표는 "교육 훈련 진행 중 취업 지원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해

클라우드 분야의 직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1대1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훈련생과 상담자 간의 라포를 형성하며 취업 동향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 종료 후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모의 면접, 기업분석 특강을 통해 훈련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펼친다"면서 군산지역의 미취업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 훈련 참가 문의는 홈페이지(<http://www.goott.org>) 또는 전화(063-452-6001, 02-864-922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 익산시, 1억5600만원 투입 보행관리기·동력살포기 등 중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편다

익산시는 농촌 일손부족 해결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익산시는 올해 1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중 소형 농기계 120여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영세를 적용 농업기계(500만원 미만)로 한정된다.

최대 지원 규모는 130만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산업계로 신청하면 되고 산업계가 없는 기타 동지역은 농촌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기리는 마라톤대회 개최

### 2월 24일 내장산 일원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마라톤대회를 오는 2월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로 명명된 이번 대회는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혁명의 자긍심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폴하프 코스, 5km, 10km 등 4개 주 종목과 10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된다.

폴하프는 전국의 달림이들에게 환상 코스로 알려진 종합경기장-내장산(C-내장저수지-내장사-종합경기장 구간에서

펼쳐진다.

참가희망자는 이달 25일까지 정읍동학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폴하프 코스와 10km는 3만원, 5km는 1만원이다.

총 상금은 3000만원으로 종목별 성적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70만원의 상금과 농산품이 주어진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은 지난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선정됐다.

황토현 전승일은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정읍시 황토현(덕천면) 일대에서 최초로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날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시·고창군, 수도권 장학수입사생 모집

남원시와 고창군이 출향 학생을 위해 건립한 장학수의 올해 입사생을 각각 모집한다.

남원시의 서울장학수는 34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22일부터 31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수도권에 있는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올해 입학하는 학생으로, 부모나 본인 중 한 명 이상이 1년 이상 남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사생은 입사비 7만원에 월 15만원만

내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고창군은 전주장학수 60명, 서울장학수 105명 등 모두 165명의 입사생을 뽑는다.

서울·경기 지역과 전북 도내에 있는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보호자나 학생의 주민등록이 2017년 1월 1일부터 고창군에 돼 있어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월 사용료는 서울 15만원, 전주 13만원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전주시, 유망중소상반기 80억 용자 지원

### 업체당 3억·소상공인 2000만원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용자 지원에 나선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80억원(제조업 60억, 소상공인 2억, 청년기업 18억)을 활용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용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용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용자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율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 및 바이전주 업체, 우수항로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신청은 18일까지이며, 전주시 현장시정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자평가표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용자금액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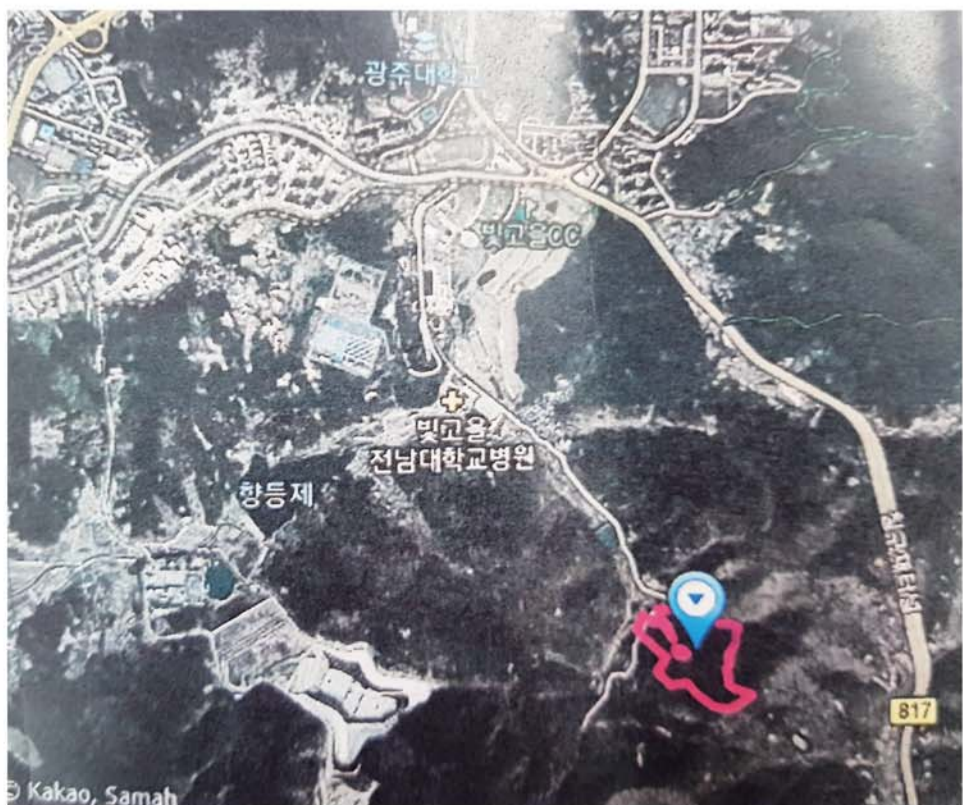
또 용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용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저금리의 용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 및 바이전주 업체, 우수항로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500평, 8500만원 투자, 투자가치 충분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